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30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5. 성경통독: 제 6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67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7/26(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은 조민연, 우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8. 강단미화: 오늘 장식은 우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9.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성경공부에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208.00)

십 일 조: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30호 2023년 7월 23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김반석 목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23:1-6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조 병 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 병 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김반석 목사	조병우 목사	우영자 권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유혜영 권사	박종님 전도사	조병기 권사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기초를 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고, 내가 잘못하면 주님은 나를 경멸하실 것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하기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요한1서 4장10절에서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고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When we consider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tend to feel that His affection for us is based on our performance. When I do well, He loves me and I fall into pride; but if I foul up, then I expect only His scorn and I fall into fear.

Yet God does not love us because we deserve it. He loves us in spite of what we are. In 1 John 4:10 we read,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us, we know we are always loved by God. That simple truth shatters our pride and dispels our fear. No one is beyond the reach of God's love.